‘엉터리 줄세우기 교육’ 반발 크다

3월 10일 초·중 진단평가 거부 움직임 전국 확산

광주·전남 교육단체 “문화행사로 대체”

교과부 “거부 교사 징계 등 강력 대응”

전북 임실에 이어 대구와 부산, 충남 등으로 학업성취도 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가 다음달로 예정된 전국 학력 진단평가(초4~중3년)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교사에 대해선 징계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단체는 학교를 서열화하는 현 평가 방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거부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지역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교육연대’는 22일 “3월 10일로 예정된 진단평가일에 시험을 거부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마련하는 등 대체 프로그램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교육연대는 오는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전남교육연대 관계자는 “일제고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현 교과부의 평가 방식은 절대 반대”라면서 “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일제고사 반대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이날 “획일적인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또 다음달 개학 후 학교 앞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성을 알리는 1인 시위와 함께 전남 각 시·군에서 피켓 시위와 선전 운동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 시민모임’도 이번 진단평가일에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일제 고사 반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진단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과목에 걸쳐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는 학년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치렀지만, 올해는 교과부가 통합해 실시한다.

한편 부산과 충남에서도 성취도 결과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는 채점이 모두 끝난 평가 답안지를 지난달 말께 다시 채점했으며, 충남 공주의 한 중학교에선 학생 46명 가운데 5개 교과별로 1~3명씩 미달 학생이 있었는데도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또 논산의 한 중학교는 교내 기말고사 성적을 학업성취도 성적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작지만 꼭 필요한 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개원 100주년

판사 3명 전국 최소…자긍심은 최고

전국에서 가장 작은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올해로 개원 100주년을 맞았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장흥지원은 1909년 ‘광주재판소 장흥구 재판소’로 문을 열어 오는 11월이면 100살이 된다.

장흥지원은 당시 조선통감부의 설치령에 의해 개원한 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 전남 남부지역 대부분을 관할했다. 이후 보성과 영암 등 관할지역을 다른 법원에 떼주면서 현재는 장흥군과 강진군 등 두 곳을 맡고 있다.

관할지역이 줄어들면서 법원 규모도 눈에 띄게 작아졌다. 현재 판사 수는 3명으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적다. 관할지역 인구는 9만여명으로, 민사합의재판도 한 달에 겨우 한 번 접수될 정도다.

최근 ‘공판중심 주의’로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판사 3명이 모여야 하는 합의부 재판을 위해 다른 법원에서 판사를 빌려와야 했던 점도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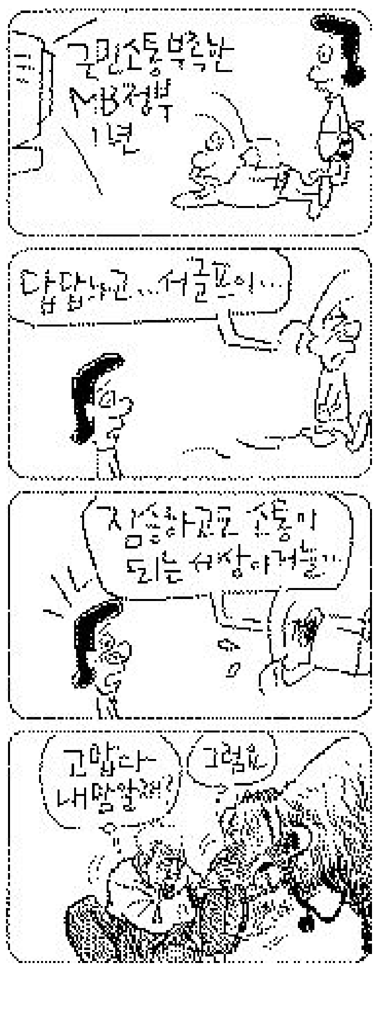
하지만 장흥지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판사들의 자긍심은 그 어느 법원보다 높다. 지역에 100년의 전통을 가진 법원이 있다는 점과 재판을 받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타 시·군에 비해 교통여건이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장흥지원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건설중인 목포~광양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인근 해남지원이나 순천지원으로 가기 위해선 꼬박 2시간이 걸린다.

최인규 장흥지원장은 “장흥지원은 모든 국민이 사법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규모는 작지만 꼭 필요한 법원”이라며 “국선변호인 상주 등 사법 서비스 확충에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735〉 김종두



실직·빚 독촉에 음독 자살

지난 21일 오후 5시30분께 천안시 천안톨게이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극약을 마시고 치료를 받기 위해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L(30)씨가 숨졌다.

L씨는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의 집에서 음독, 6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L씨는 1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뒤 1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 기자 golee@

임대해준 공장 침입

납괴 훔친 40대 입건

광주남부경찰은 22일 자신이 임대해준 공장에 들어가 납덩어리를 훔친 T금속회사 대표 김모(39·광주시 북구 운암동)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최모(49·광주시 북구 문흥동)씨가 운영하는 제련공장에서 납괴 10t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시가 1천540만원 상당의 납괴 11t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개월 전 자신이 최씨에게 월 800만원을 받고 임대한 공장에 보관중이던 납괴를 사촌매제와 함께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외국인노동자 건강 검진 광주시는 22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에서 산업체 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핵과 에이즈 등 만성전염병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일당 받고 ‘보이스피싱’

목포경찰, 중국인 유학생 3명 영장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당을 받고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은 22일 전화금융사기로 빼돌린 현금을 인출해 중국인 인출총책에 불법 송금한 중국인 유학생 최모(20·전남 D대 2년)씨 등 3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대전에 사는 최모(여·71)씨 등 3명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챙긴 뒤 이를 중국인 인출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수도권과 전남지역 모 대학교 학생인 이들은 현금 인출 총책으로부터 하루 20만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결혼식장 소매치기범 의경에 ‘덜미’

쌍나팔

○…예식장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현역 의경이 하객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던 소매치기범을 추격 끝에 붙잡아 화제.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 기동 8중대 소속 이용호(21) 상경은 22일 오후 1시20분께 서구 농성동 M웨딩홀 앞길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중 하객 정모(여·42)씨 등 3명의 손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김모(56)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

○…이 상경은 우연히 범행 현장에 서 있던 중 “소매치기다”라는 정씨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100m를 뒤쫓아가 김씨를 붙잡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쫓아갔다”고 설명. /이종행 기자 golee@

강호순, 아내·장모 방화 살해 확인

검찰, 곡괭이서 다른 여성 2명 유전자형 검출

연쇄살인범 강호순(38)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강호순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압수해 송치한 곡괭이에서 2명의 다른 여성 유전자형이 검출됨에 따라 강이 자백한 8건 외에 여성들을 더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5년 10월 강호순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인과 장모가 숨진 사고는 강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화재를 위장해 저지른 방화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강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 두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빈 사무실서 다방 종업원 상대 상습 강도

서부경찰 30대 영장

도심의 빈 상가나 사무실 등에 침입해 다방에 차를 주문한 뒤 배달을 나온 여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30대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2일 김모(37·영광군 불갑면)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9시45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장난감 보관창고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차 배달을 시킨 뒤 다방 종업원 김모(여·20)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법원경매 친절상담 ☎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호남동	74/74	10억	4억4870만	단층/동광주세무소앞
우산동	727/1432	67억2820만	30억1430만	3층/자동차매장,정비업소
오치동	281/231	7억4940만	4억1960만	우산중인근,식품공장
나주남내동	290/82	5억4700만	3억630만	단층/대중음식점
오치동	50/52	1억6110만	9030만	2층/창고,사무실적합
수기동	50/103	4억2580만	2억3840만	3층/음식점,사무실적합
양산동	362/994	41억4000만	16억9600만	5층/금융,병,의원,학원적합
지석동	151/213	5억540만	2억8300만	2층/병,의원,적합,[illegible]

▶근린상가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매월동	11	6200만	2220만	1층/공구상가
우산동	24.7	2억5200만	1억1290만	2층/[illegible],편의점
풍암동	60.7	2억9200만	2억440만	2층/금화타운,학원,병,의원적합
동림동	183	4억5000만	1억2900만	지하/삼익@상가,마트운영중
화정동	9.4	9400만	2695만	3층/금호월드
매곡동	48.9	2억6000만	7460만	2층/도로변,병,의원,학원적합
신창동	29.8	1억5700만	7000만	6층/[illegible],학원,병원적합

▶근린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신가동	62/136	4억7000만	3억2900만	3층/사무실,음식점,주택,대로변
월산동	76/95	3억2100만	2억2470만	3층/상가,주택,[illegible]
송정동	69/58	2억	1억4100만	단층/상가,주택,[illegible]
주월동	43/42	2억3830만	1억6677만	2층/[illegible]
나주금천면	344/164	4억4180만	1억9800만	3층/소매점,주택

▶다가구(원룸)/숙박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지산동	74/99	2억6400만	1억8482만	15가구/법원인근
중흥동	85/123	4억5760만	3억2034만	18가구/광주역인근
학동	89/138	5억2300만	3억6600만	18가구/학동3구역
광천동	91/221	5억3370만	3억7360만	20가구/재개발지역
남평읍	832/826	15억4000만	4억4170만	4층/객실52,[illegible]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장성삼서면	848/41	1억2000만	6760만	전원주택
쌍촌동	51/63	1억7800만	1억2460만	2층,역세권주변
중흥동	39/47	8680만	4860만	2층,중흥천주교인근
중흥동	48/53	1억1920만	6680만	2층,평화시장인근
신가동	70/97	1억8950만	1억6100만	2층,신가초교인근
동명동	24/29	8770만	4920만	2층,동명교회인근
용봉동	39/47	8780만	6150만	2층,유청파크인근
본촌동	89/35	8820만	4940만	단층,광신대인근
월산동	44/38	8150만	4565만	단층,월산2구역내
중흥동	42/48	9520만	5330만	2층,효동초인근
장성읍	60/32	5000만	2810만	단층,장성공원인근
백운동	103/54	3억3220만	1억8610만	벽산@인근,고급주택
두암동	43/50	9650만	6760만	2층,흥플러스인근

▶다세대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화순광덕리	17.8	3000만	2100만	대림연립,2층
풍향동	57.07	1억6000만	8960만	대주빌라,1층
월산동	13.1	2400만	1680만	광신연립주택,2층
방림동	14.8	4000만	2240만	송림맨션,3층
나주삼영동	18	2400만	1680만	삼영연립주택,1층
곡성목사동면	19.7	7000만	4980만	아이비빌,1층
중흥동	18.2	4300만	3010만	해광맨션,3층

▶오피스텔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신안동	6.6	2450만	1372만	제일,12층
치평동	54	4억2000만	2억3520만	로잔티움파크,4층
수기동	9.1	4300만	1541만	제일,13층
치평동	11.6	7500만	3360만	구영드림빌,4층
월산동	13.7	8600만	3090만	동강,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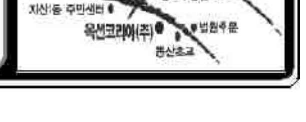
▶아파트

소재지	명칭	층	면적	감정가	최저가
문흥동	금호	5층	42	1억7600만	1억2320만
금호동	한국	14층	24	9000만	6300만
월계동	금호	15층	34	1억500만	7350만
용봉동	대신	8층	32	7500만	5250만
월곡동	삼호	2층	37	1억3800만	9660만
화순읍	대광그린	14층	24	4000만	2800만
내방동	해태	2층	32	1억1000만	7700만
우산동	동산	6층	24	5100만	3570만
문흥동	우산주공	15층	24	5500만	3850만
봉선동	무등2차	23층	32	9800만	6860만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백운동	대지	379	7억4120만	5억1890만	현대@인근
곡성목사동면	답	692	2516만	1761만	용사마을인근
나주공산면	답	473	1437만	1000만	독와실마을인근
장성황룡면	답	447	1623만	1137만	대판이마을인근
영광백수읍	전	961	2850만	2000만	중촌마을인근
영광읍	전	609	1812만	1270만	구평마을인근
나주남내동	대지	44	3460만	2430만	나주여중인근
나주왕곡동	답	731	3623만	2030만	화산마을인근
장성읍	답	713	3355만	1500만	덕진촌마을인근
장성북일면	답	720	2712만	1900만	궁평마을인근

▶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수동	155/136	3억2400만	2억2680만	소촌공단인근
화순동면	1248/641	7억766만	3억1700만	동면농공단지내
용동	294/206	4억4000만	2억4660만	평동공단내
장성북일면	1990/669	14억8620만	5억5680만	갑동마을인근
용동	634/185	11억5000만	5억1560만	매월유업인근

풍암동	소촌동	용동	지석동	차평동	월산동
대539/건1309	대802/건1387	대509/건412	대151/건213	전용면적54	대118/건295
감정가52억	감정가65억	감정가9억6800만	감정가5억540만	감정가4억2000만	매매가4억7000만
최저가36억	최저가45억	최저가6억7760만	최저가2억8300만	최저가2억3520만	교통편리,대로변
사우나,헬스,마트	사우나,찜질방	공장/평동공단내	병,의원적합,대로변	로잔티움,4층	병원,요양원적합